

企業危機와 挑戰

~ 競争力 強化만이 危機 克服의 길 ~

宋 基 澈

〈高麗大學校教授·經博〉

1. 과연 危機인가?

요사이 우리들 주변에선 危機란 말을 자주 듣고 또 쓰고 있기도 하다. 과연 우리가 현재 위기에 당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란 내용이 무엇이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인간은 그의 생존유지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가정, 기업, 국가 혹은 기타 조직을 마련, 그 속에서 또 그를 통해서 보다 안정된 생존유지와 계속적인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행복의 추구에 노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 국가, 산업 혹은 기업, 가정 혹은 개인을 에워싸고 있는 국내외에 걸친 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환경변화는 종전과 같이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可觀의 인물이 못되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不規則的으로 급변하는 어려운 위기적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념의 차이와 국가이익상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열전 혹은 냉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핵심인 기업은 국내외에 걸친 여러 어려움을 뚫고 이겨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치열한 경쟁하에 놓여 있다.

하여간 국가나 산업 혹은 기업, 가정이나 개인 모두가 국내외에 걸친 정치·경제·사회·기술

적 환경 변화속에서 그의 생존유지와 지속적 성장 그리고 균형있는 사회적 책임을 잘 해나가기에 아주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2. 危機의 内容

문제를 우리 한국에 국한시켜서 보더라도 우선 국가의 상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가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최근세를 두고 볼 때에 우리는 매 10년마다 큰 변혁을 겪고 있으며 그 시발점이 되는 해를 보면 9자나 0자 붙는 해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1910년의 한일합방, 1919년 3·1운동, 1929년 세계대공황, 1939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50년 6·25사변, 1960년 4·19, 1972년 유신체제 그리고 79·80년 제2차 석유파동, 10·26사태와 12·12사태에 이은 광주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필자는 다가오는 89년과 90년은 여러 징후로 보아 정치위기, 사회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를 포함한 국가 위기가 올지도 모르니 미리미리 이에 대처해서 슬기롭게 넘어가야 한다는 「89위기론」을 개진한 바 있다.

이러한 상서롭지 못한 예언이 맞지 않았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지 모를 일인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예언이 적중되어 우리는 지금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기의 갈림길에 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위기는 한 국가가 정치·사회·경제 등으로 얽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선 정치적으로 여소야대의 불안한 정국하에서 마치 「닭싸움」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다 분단된 국가로서 심각한 이념상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통일이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공의 데탕트현상과 자유화, 일본의 정치불안 거기에다 미군의 철수설 등등 국내외적으로 불안의 파고가 점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면 가치관의 혼란, 종교적 갈등 그리고 각계 각층의 욕구불만으로 인한 갈등, 그 중에서도 동시·다발·광역화되어 온 노사분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 역시 적지 않다.

우리 인간은 「빵 없으면 못 산다」는 말도 있듯이 경제불안은 국가위기와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순수한 경제란 있을 수 없고, 현실 경제는 정치경제요, 사회경제요, 심리경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불안·사회불안·심리불안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86·87·88년의 3년 동안 국제수지 흑자경제, 1~4% 정도의 한자리 저물가안정, 12%를 상회하는 고도경제 성장 등으로 소위 우리 경제의 마의 삼각선이라고 하는 고도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흑자란 어려운 목표를 모두 잡아 경제모범생이란 말을 듣게끔 되기도 하였다.

그처럼 좋았던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상보다는 훨씬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89년의 우리 경제로서 이제 경제위기란 말까지 나오게끔 되어 버린 한심스러운 국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89년의 경제위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국내외적인 정치적 불안 즉 국내정치 불안과 선진국의 높은 무역장벽 및 수입자유화압력 그

리고 원화절상 등에서 오기도 하지만, 가장 큰 근본적 이유는 우리의 대내적 요인 즉 정치불안·반체제적 갈등·노사분규 등 광범위한 사회불안과 우리들 자체의 국내외에 걸친 경쟁력 약화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3. 企業天下之大本

요사이 농약이 무슨 행사 때마다 등장한다. 그 때엔 의례히 깃발이 나부끼게 마련인데 거기에 農者天下之大本이란 글이 씌여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농업이 우리 인류의 의식주의 기본 자료를 제공해 주는 천하의 기본임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농자천하지대본도 사회변화에 따라 변질해서 옛날만큼의 큰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

종전에는 농업에 매달려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50% 이상, 심지어는 70~80% 정도였으나 이제는 그 비중이 줄어서 미국에서는 7~8%,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17~18% 정도로 이미 농업사회 아닌 산업사회로 옮겨 왔다고 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산업사회란 농업 등 1차산업에서 만들어진 소재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변형된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회 즉 工者天下之大本의 사회인 것이다.

물론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사회화해서 서비스 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奉者天下之大本이 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하여간 농업이건 공업 혹은 서비스업이건간에 그들이 모두 업이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맞는 조직체가 되지 않으면 이들 그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농업이건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간에 이들 모두는 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뜻에서 企業天下之大本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국가 그리고 어느 시대에 걸쳐서도 만고의 진리라 할 수 있다. 농업이건 공업이건 서비스업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농업기업, 공업기업, 서비스기업이 많고 크고 병들지 않고 그들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사회가 고급의 역사를 통털어서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4. 企業危機

그 나라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필요로 한 사람과 돈 그리고 물자를 잘 결합시킴으로써만 그 생존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기업에 부과된 사회적 책임 즉 국가·주주·종업원·소비자·거래처·지역사회에 대한 균형 있는 책임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기업은 그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이이익이 매년 늘어나야만 하며 또 매출액과 시장점유율도 매년 增加하여야만 한다.

지금 일부에서는 기업이윤을 마치 「착취」인양 偏向적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기업이윤 없이는 정부에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주주에게 배당이나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이 어려워지고 기업에서의 재투자자원 마련도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값싸고 좋은 물건의 공급이 어려워지며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없고 기업적자가 누적된다 보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기업의 생존유지 조차도 어렵게 되어 부실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선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비극을 초래하게끔 된다. 만일 기업이 부실화하거나 문을 닫게 되면 종업원의 실직사태가 벌어지고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 또 국민경제에 필요한 생산품의 공급중단 등으로 물가가 급상승할 뿐만 아니라 수출도 감소되어 국민경제가 어렵게 된다. 경제는 擴大再生産이 되어야 하는데 縮小再生産이 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이 경제위기는 실업군의 증대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이들 경제불안과 사회불안은 정치불안으로 이어져 상호 물리고 물리는 연관관계에서 국가위기와 국가파국으로까지 물고 가게 되는 사례를 우리는 越南과 中南美제

국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아왔다. 그런 뜻에서 기업천하지대본으로 보아야 하고 또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경영학에서 유행하는 속담의 하나에 「기업은 망하는 것으로 알아라」는 말이 있다. 100개 기업이 10년 지나고 보면 살아남은 것은 10개도 못된다는 실증을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입증하고 있다. 이것은 天下之大本인 기업경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라 생각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날에는 기업이 별로 없었으며 그것도 규모가 작았고 그 내용도 별로 충실치 못하여 우리 국민경제는 후진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해방 후 국토분단, 6·25동란, 휴전을 거쳐 5·16 군사혁명 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전기로해서 국민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내용도 충실해져 국내외적으로 기업이 갖는 기본적 목표를 잘 달성시켜 왔다. 오늘날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선진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 크게 부각되어 「한국이 몰려온다」든지 「경제우등생 한국」이라든지 해서 많은 찬사와 주목을 받게끔 되었던 기본적 배경이 바로 기업천하지대본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던 모범경제국가가 89년에 들어와서는 급전직하 승천하던 네마리 용 중에서 용은 커녕 메기로 떨어져 가고 있지 않으나는 등 외국으로부터 조롱과 냉소의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제 2의 월남화라든지 중남미화라는 끔찍스럽고 창피한 말까지 듣게끔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과연 그러한 경제위기에 와 있고 또 그 바탕이 되는 기업위기에 와 있는가?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새롭게 기업을 만들려거나 또 기업을 더욱 더 크게 키우려는 기업창설과 기업확장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으니 그것은 기업경영이 국내외적으로 어렵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이번의 노사분규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당한 受侮에 너무나도 실망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기업의 내용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기도 하다. 우선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시장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 즉 수출부진으로 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몫이 줄어들고 있으며 또 국내적으로도 외국상품의 수입자유화확대로 유사한 양상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에 걸친 치열한 경쟁 외에 노사분규로 인한 폐업·휴업·태업 등으로 기업이윤이 대폭 줄어들고 있거나 적자전환 기업도 늘어나고 있으니 그것은 폭등일로에 있던 주가가격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로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위기가 89년 상반기에만 그친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회복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런 추세가 89년 하반기와 90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회생불능의 치명상을 받을 분기점에 와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국가위기·경제위기·기업위기가 괜한 소리가 아닌 사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제 2의 월남화나의 갈림길에 와 있다.

5. 挑戰·克服의 길

그러면 克服의 길은 없느냐 하면 「있다」는 것이 필자의 대답이다. 그 극복의 길은 우선 우리의 국가위기·경제위기·기업위기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마치 위기설을 공연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측도 있으나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거니와 우리는 정말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위기가 도전의 기회란 긍정적·적극적·문제해결적 자세로 머리를 싸가면서 협동단결해서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셋째, 우리는 흔히 요사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야」라고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나 때문이야」라고 자기책임을 먼저 묻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넷째, 우리는 지금 너무나 조그마한 자기이익만을 앞세울 뿐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전체 이익보다는 개인 이익을, 면 이익보다는 당장의 이익만을 내다보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6. 競爭力 強化의 길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마치 외국 탓으로 돌리는 정치가·행정가·학자도 있으나 양심적인 학자는 그 원인이 미국 자체, 미국인 자체에 있다고 보고 다음 네가지를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네가지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로 돌려 놓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미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우리 기업만이 생산하고, 값싸고 품질이 좋으면서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제공만 할 수 있다면 그 기업, 그 나라 경제가 어려울리가 없는 것이다.

우선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옛날에는 의식주 관련 상품·서비스만이 그러하였으나 이제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 값싸고 좋은 물건이어야 한다. 아주머니 떡도 고와야 사먹고 싸야 사먹는다는 말도 있듯이 우선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지난 날의 우리 경제는 후진국으로서 우선 가격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했다.

이 가격경쟁력은 후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싸고 또 후진국이지만 최신 기계설비를 도입, 생산했기 때문에 비교적 생산성이 높다는 후발개발의 이점이 겹쳐 경쟁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6·29선언 이후 폭발하는 임금인상 압력은 우리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려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값비싼 상품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로 인

하여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나 중공 등이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배주²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또한 올라간 값만큼 품질이 향상되지도 못하고 또 거래조건도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가격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여기에선 임금인상이 적정해야 하고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미국에서는 더 많은 저축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과소비, 사치소비 풍조하에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자손대의 지출을 미리 당겨서 하는 신용구매 등이 활성화해서 이것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와 물가등귀를 가져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정도 우리와 똑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저축이 낮으니 미국경제의 암인 쌍둥이 적자 즉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도 이 저축면에서 분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축이 적으니 투자를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더라도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기업에 적극적인 신규투자를 해야 하는데 「재택」이란 미명하에 그것을 깨우치니 물건의 품질이 나빠지고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아 가격이 비싸진다. 가격이 비싸지니 수출과 국내판매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국내산업이 공동화되거나 수입은 증가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게 된다. 거기에다 「재택」만을 앞세워 돈장사만 하게 되니 증권투기·토지투기·실물투기가 조장되고 국민들은 허영에 빠져 마치 망해간 「로마의 쫄」을 닮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를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의 기본은 勞動天下之大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땀흘려 일하지 않고 노세노세 풍조에 젖어있는 바 이러한 풍조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지적이다.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의 지난날 특징의 하나

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 우선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의 하나였으나 이제는 주당 44시간제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또 연장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사회적으로 스타일 구기는 일은 하려들지 않는 노세노세 풍조가 우리에게도 만연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인 「아직도 제조기업의 사장을 하고 계시니까?」하고 자학하고 있는 사회풍토는 제조기업이 얼마나 어려운 기업경영환경하에 있느냐의 단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7. 賃金引上, 生産性向上 物價安定의 調和를

사람은 생활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수입이 있어야 한다. 기업사회에 있어서 그 수입의 원천이 임금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얼핏보면 고임금이 항상 유리한 것 같이 보이나 국민경제나 기업경영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이 바람직한 것이다. 기업경영의 경우는 생산성 향상의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이어야만 그 기업의 경우 국내외에 걸친 경쟁력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외에 걸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부실화, 나아가선 기업도산으로까지 이끌게 된다.

또한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물가안정이란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이 있어야 하며 또 임금인상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되어 그 나라의 물가가 안정되고 국내외에 걸쳐서 그 나라, 그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의 범위를 넘어 그것이 그 나라의 물가를 극도로 자극한다면 또다시 임금인상, 저생산성 그리고 높은 물가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중남미 병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